

# 특검 “뇌물죄 수사, 다른 기업도 대상”

### SK그룹도 수사 대상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소환 이재용 이르면 이번주 초 소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뇌물죄 관련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뇌물죄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뇌물죄 수사에서 삼성만을 특별히 염두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법2조에 명시된 수사대상을 보면 삼성 등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SK그룹을 대상으로도 뇌물죄 관련 혐의 수사를 벌이다가, 중단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팀은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을 오후 2시에 소환하는 등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삼성전자에 대한 뇌물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 사장은 삼성전자를 통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재단센터에 16억원의 지원금을 건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사장은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총기(63) 미래전략실 사장 등과 함께 최씨 일가 지원 과정에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주요 경영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이 특검에 소환됐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을 소환한데 이어 임 사장까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주 초에 소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구체적 소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특검은 고(故) 최태민씨의 의붓손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최씨일가의 부동산 등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등 재산 형성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산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에 대통령의 재산형성 과정은 수사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최씨 등에 대해서만 수사대상”이라고 부인했다. /뉴시스

### 박재만 도의원, AI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영업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전북도는 닭, 오리 총 259만1000 마리가 살처분 됐다”며 “닭, 오리 사육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닭, 오리, 계란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도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피해가 확대돼 피해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AI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덧붙여 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이라도 감면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위축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도내 주요 공공기관의 급식 등에서 닭, 오리 소비를 확대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재용 기자

## 도의회, 사고 친 부의장 · 행자위원장 교체 논의

### 국민의당 두 자리 모두 요구... 부의장 이성일 의원 · 행자위원장 김종철 의원 거론

전북도의회가 비리와 부적절한 행위 등 개인적인 일탈로 사실상 공석이 된 ‘부의장직’과 ‘행정자치위원장직’에 대한 차기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직을 장악하고도, 의회직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국민의당이 이 두 자리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

6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영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전주 제4선거구 도의원)이 이날 ‘부의장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강 부의장은 현재 도 재량 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뒤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

강 부의장은 부의장 사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날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등에게 구치소 면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전주 제3선거구)이 지난 달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송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께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 시 동료 의원들에게 사비 수백만원을 들여 여행비를 지원해 물의를 빚었다.

부의장직과 행정자치위원장직 두 자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당 의원을 배치하기 위해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계기로 전북도 정치권의 관도가 국민의당으로 넘어왔는데 정작 전라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며 두 자리 모두 국민의당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회 38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8명이고 국민의당은 8명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지난해 4월 제20대

총선에서 도내 10개 의석 중 7개 의석을 차지하자 도의회 의회직 배분을 요구했다.

현재 전북도의회 의원직은 의장 1석과 부의장 2석, 상임위원장 5석, 특위위원장 2석 등 모두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장악하고 있다.

황현 도의회 의장은 “부의장직과 행정자치위원장직에 대해 의원들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1월 임시회에서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정당 간 협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당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심사숙고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부의장 후보로 국민의당 소속 군산 이성일 의원(군산 제4선거구)이 거론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국민의당 소속 김종철 의원(전주 제7선거구)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경선 룰 마련 작업 공식 착수 추미애 대표 “설 연휴 시작 전 등록 마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기 대선에 대비한 경선 룰 마련작업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 룰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당내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하겠다”며 “적어도 설 연휴 시작 전에는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는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대권주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추 대표는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 경선을 뭉개자들이 구제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가 일일이 만나 뵙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경선 관련 당헌 당규 작업은 양승조 당헌당규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12월 캠프별 대리인들을 통해 각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월초까지 경선 룰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논의가 연기됐다.

한편 경선을 마련 작업은 기본적인 틀을 먼저 갖추고 이에 대한 주지별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도 기득권, 청산 대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원순 서울 시장이 8일 전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도내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춥바람은 기득권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열원”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를 잘못해서 춥바람이 나온 것이고 그 안에는 새누리당 해체라는 큰 요구가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의 해체를 요구받는 정당”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기득권이 가져 온 여러 문제를 분명한 청산 대상이다. 이를 반드시 넘어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득권의 줄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음 서울 시장에 출마할 후보까지 정해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국민의당 당대표, 최고위원 및 여성·청년위원장 합동유세를 진행하고, 당원 대표자대회를 열어 김광수(전주 갑) 국회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북도당 정진숙 사무처장은 “미리 예고한 후보공모 기간 내 김광수 후보만 단독 후보로 등록했으며, 총선 후 당사 이전과 조직 강화, 탄핵정국에서의 단호하고 열성적인 도당 운영이 도내 지역위원장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